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日新又日新

문장 독해

오늘은 ‘문장 독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문장 독해’는 영어의 ‘구문 독해’와 거의 같습니다. 즉, 국어에서의 ‘문장 독해’는 영어에서의 ‘구문 독해’처럼 독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란 ‘언어표현과 문법학의 기본단위 중 하나’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형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주어 + 서술어

ex) “바람이 분다.” “하늘이 푸르다.”

②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ex) “철수가 밥을 먹는다.”

③ 주어 + 보어 + 서술어

ex) “물이 얼음이 되었다.”

④ 주어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 서술어

ex) “영희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⑤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ex) “영수가 철수를 바보로 만들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Step1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위에서 제시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주어가 무엇인지,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어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서술어

주어를 서술하는 문장 성분의 하나

*출처: 고려대 국어사전

다만, 문법적인 내용에 치중해서 세부적으로 문장을 쪼개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 하므로 이후 서술할 내용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선까지만 문장을 쪼개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문법적인 구성 성분으로서의 주어와 독해를 함에 있어서 주목하는 주어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예를 통해 확인해봅시다. 예시 지문으로는 1511B ‘신채호의 역사관’ 지문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문단의 첫째 문장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에서 주어와 그에 대한 서술어는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어는 ‘역사가 신채호’, 서술어는 ‘바 있다.’입니다. 또한 안긴문장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다.’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살펴보면, 주어는 ‘역사’, 서술어는 ‘이다.’이겠네요.

다음 문장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는 ‘그는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문장과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라는 문장이 ‘때문에’에 의해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 ‘그의 이러한 생각’, 각각에 호응하는 서술어는 ‘이기도 했다.’, ‘비춰지게 하곤 한다.’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여기서 주어는 ‘그’, 서술어는 ‘지향하기도 했다’이고,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문장에서는 주어는 ‘투쟁과 연대’, 서술어는 ‘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장은 ‘이를 바르게 이해하다.’와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가 ‘위해서는’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으며, 각각의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이’, ‘이해하다.’와 생략된 주어(‘우리는’ 정도가 되겠죠?), ‘이해할 필요가 있다.’가 되겠네요.

Step 2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목적어와 보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목적어

글의 서술어인 타동사의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말

보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완하여 완전하게 만드는 필수 성분

*출처: 고려대 국어사전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역사’, 보어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 될 겁니다.

다음 문장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파악해봅시다.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쪼개진다고 했죠?

그 두 문장, ‘그는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에서 목적어는 각각 ‘무장 투쟁의 필요성’, ‘그를’, 보어는 각각 ‘역설한 독립운동가’, ‘투쟁만 강조한 강경론자’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입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라는 문장은 딱히 목적어와 보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여 다른 문장으로 바꾼다면,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뀐 문자에서의 보어는 무엇일까요? ‘모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에서 목적어는 각각 ‘이’, ‘아’입니다.

Step 3 문장에서 접속사와 지시어에 주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자.

다음으로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와 ‘이러한, 그, 이’와 같은 지시어 등과 같은 것들의 의미를 알고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속사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를 연결하거나, 앞 문장의 뜻을 뒤의 문장에 이어 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부사. ‘및, 또(는), 혹은’ 등과 같이 나열의 기능을 하는 것과 ‘그러니,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등과 같이 문장을 순접(順接)하는 것,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등과 같이 역접(逆接)하는 것이 있다. 자립어로서 관형사나 부사처럼 격변화나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출처: 한국어 사전

그리고 지시어는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시어

①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

예) 선비 정신, 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승해 나아가야 할 민족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그: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이나 알려져 있는 사물, 혹은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

예)부모님이 오랫동안 건강하시는 것,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아픔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으리라던 기대가 컸던 만큼 그에 대한 실망도 컸다

③ 저: 말하는 이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

예)어머나, 저를 어째! 누가 좀 말려 주세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야?

*출처: 고려대 국어사전

그러면 이제 실제 문장들을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문장에서는 딱히 접속사와 지시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때문에’, ‘이러한’ 등의 접속사와 지시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때문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는 앞 문장의 ‘역사가 신채호’를 지칭하며, ‘때문에’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까닭임을 제시해주며, ‘이러한’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하지만’과 ‘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은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며,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것임을 드러내며, ‘그’는 역시 ‘역사가 신채호’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 중 어떤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투쟁만을 강조’라는 부분과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바로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입니다. 즉, 신채호는 ‘투쟁’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투쟁’과 ‘연대’를 모두 지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에서 ‘그’는 역시 ‘역사가 신채호’를 지칭하는 지시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장에서는 ‘이’, ‘위해서’, ‘그’가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앞 문장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을 지칭하며, ‘위해서’는 앞 내용인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는 ‘역사가 신채호’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tep 4 생략된 내용이 있다면 ‘생략된 내용 추론’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장은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라는 태도로 해결하자.

접속사와 지시어에 대해서 배운 다음은 ‘생략된 내용 추론’과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라는 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략된 내용 추론’을 해봅시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 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문단의 어디에 생략된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 두 문장 사이입니다. 여기서 생략되었을만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는 요소이다.’입니다. 만약 이 문장을 넣었다면,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에서는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사를 추가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라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글쓴이는 하나의 글을 하나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씁니다.

따라서 한 문단의 모든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잘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봅시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라는 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1.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 2.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
= 1.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 & 2.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
= 1.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 & 2.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
= 1.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 & 2.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

*‘=’: 문맥적으로 의미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네모 박스에서 여러 문장들 중 가장 잘 이해가 되는 하나의 문장을 골라서 다른 문장들은 이해가 잘 되는 문장과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 요약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Step 2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Step 3 문장에서 접속사와 지시어에 주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자.

Step 4 생략된 내용이 있다면 '생략된 내용 추론'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장은 '한 문단의 주제는 하나'라는 태도로 해결하자.

문장 독해는 위의 4가지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연습을 통해 칼럼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의식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문장 독해

2018년 12월 6일 작성, 2018년 12월 10일 검토 완료

<작성자>

루아갈

- 지방의대생
- 16 수능 국어A형 100점(100%)
- 17 수능 국어 96점(99%)
- 前) 국어 기출 모의고사 검토자
- 현대시의 4요소, 독서-재진술 칼럼 등 작성
- 각종 문의: sohnhd@naver.com

<검토자>

갓노운

- 19 수능 국어 1등급

Esther Lucy

- 19 수능 국어 백분위 100

Veritas liberabit

- 現) 라플라스 국어 스태프
- 18 수능 국어 100점, 19 수능 국어 97점
- 19 수능 대비 칼럼 Lucete 작성, 20 수능 대비 칼럼 Occasio 작성

본 칼럼의 저작권은 포만한 수학 연구소, Laplace Club 루아갈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을 허용합니다.

